농업을 단지 비교우위로 말하려는가?

〈續〉

결국 우리의 식량안보가 목표한만큼 달성되려면 식량은 아직도 국내에서 2백20만톤 가량을 더 생산해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농산물 수입확대압력이 계속되고 농경지가 줄어들며 농업노동력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식량생산량 수준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라 할 것이다. 더우기 현재와 같이 전세계의 사막면적이 늘어가고, 공해로 인한 가뭄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언제 세계적 식량부족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시각에서 식량생산을 지금보다 한사코 후퇴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쌀밥과 된장국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생활을 영위해왔다. 생선을 먹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육류를 섭취할 기회는 좀처럼 가질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건강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생활이 크게 달라졌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면서 육류와 생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965년 대비 87년의 경우 쇠고기는 3·6배, 돼지고기는 5배, 닭고기는 7배나 늘어났으며, 생선 소비도 2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식생활이 고급화되면서 우리 나라에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크게 늘고 있는것이다. 또 인간의 생태학(生態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식품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자란 것을 먹고자라야 건강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국사람은 한국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자라야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육체가 그 땅의 풍토와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쌀이라 해도 미국땅에서 생산된 것과 태국땅에서 생산된 것, 그리고 한국땅에서 생산된 것은 제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과실 중 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그 맛을 내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종자를 일본이나 미국에 가져다가 재배를 시도하면 실패하는 것도 토질과 기후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남의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어떤 농약을 쳤는지는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알길이 없다. 국내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확인도 할 수 있고 시정시킬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때 일본에서는 호주에서 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문제가 된일이 있다. 호주는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수출밀을 배에 싣기전 창고에다 해충발생방지를위한 맹독성 농약「메타시스톡스」를 강하게 뿌려온 것이다. 필리핀이 수출용 바나나에 부패방지를 위해 살포금지 농약인「네마곤」을 뿌려 문제가 된것도 유명한 사건이었다. 결국 남의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농촌 부문이다. 농업을단순히 인간의 의식주에필요한 물자만을 생산해내는 부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또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건강생활을 지속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물과 흙과 푸르름, 그리고 대기(大氣) 등의 자원과 환경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것은농업·농촌이 갖고있는 가장 큰 기능이다.

농업과 농촌은 정서를 함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시에 가득찬 탄산가스, 아황산가스를 마시고 사는 도시민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푸르름의 제공을 통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시키고 대사(代謝)시키는 것도 농업과 농촌부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농촌을 보면 생기를 찾고 고향을 연상하며 삶의 의욕을갖게된다.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마음놓고 쉴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공장마당인가, 도시의 공원인가. 농촌이 바로 그곳이다. 정부는 도시의 환경보존에 막대한 돈을 쓰기보다 농업과농촌부터 잘 가꾸어야 한다.

도시에 살다가 만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몸은 도시에 있어도 마음은 농촌에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죽어서 농촌에 묻히기를바랄지언정 살아있을 때농촌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농업은 경제적 기능을수행하는 것이 중심임에도 비경제적 기능도 함께수행하는 것이 특성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경제적 기능수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점 때문에 선진국들은 농업이 생산성도 성장률도 타산업보다 낮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계속해서 농업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보조금을지급하면서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책을 수행하는 당국자들이 시종 농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과정에 있다. 이 민주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터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꽃을 피우게된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더라도 총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인구가 현재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한, 경제적 민주화는 물론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복지사회로 가는 길도 한계에 부딪히게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쿠즈네츠도 갈파한 바 있다.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지 않은상태 속에서의 공업화정책은 후진국을 중진국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하지만 선진국까지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한다」고 농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뒤 처지게 되면 빈부격차를 유발하여 정치·사회적불안정을 조성하고 보다많은 인구를 식생활 해결에 매달리게 함으로써식량가격상승과 그에 의한 고물가를 유발하며, 그때문에 농업이 져야 할부담을 공업과 서비스업이 대신 부담하게 됨으로써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의 요체는 자기가 성장한 땅에서 자란것을 먹는것이 제일 좋다.

□…「농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지 않은 상태 속…□
□…에서의 공업화정책은 후진국을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게 하지만 선진국까지의 진입은 불가…□
□…능하게 한다」는 미국 경제학자 쿠즈네츠의 발…□
□…언을 우리의 정부당국자는 백번이라도 되새겨…□
□…음미해 보아야 한다. 〈서기원／농협대 교수〉…□

교양시리즈

連載 栽培教室

'89 新規會員을 爲하여

강 활 ‖ (羌 活)

1、羌活
2、生藥部：뿌리(根)
3、効用：解熱、鎭經、頭痛、關節痛、神經痛 등 驅風藥으로 쓰인다.

1、性 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그 높이 1m 내외에달리며 씨는 白芷, 當歸씨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색깔이 약간黃褐色이 많은 편이다. 當歸, 白芷등은 開化結實뒤에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지만 羌活은 이와달라서 開化 結實후 원뿌리는 썩어 없어져도 뿌리 옆에서 싹, 즉 노두가 새로 생겨서 다시자란다.

2、栽培法

1、栽培 適地
中北部 山間地帶 서늘한 곳이 氣候상 적당하며 土質은 表土가 깊고 濕氣가 적당히 있는 東北向의 그늘이 약간지는 植質 壤土에서 잘된다. 南向의 사양진 곳이나 濕氣가 적은 곳은 生育이 좋지 못하다.

2、繁 殖
노두(蘆頭)로서 번식하는 蘆頭植付法과 종자로서 번식하는 育苗移植法이 있다.

蘆頭植付法은 가을 수확시에 뿌리위에 붙어있는 노두를 떼어서 種根으로 本圃에 바로 심는 방법인데, 蘆頭를 심으면 잔뿌리가 많은 편이어서 品質은 다소 손색이 있으나 當年에 수확할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

育苗移植法은 播種, 育苗 등 노력이 들고 2년 만에 수확하게 되므로재배상 불리한 점도 있다. 잔뿌리가 적어서 품질이 좋은 편이다.

㉮播種時期：늦은 가을에 파종하여야 發芽가잘되며 形便에 의하여 가을에 파종못하였을 때에는 겨울에 주머니에 넣어서 排水溝 옆에 씨를 두고 가끔 물을 뿌리어 濕氣를 먹음케 하였다가 이른 봄에 파종토록 하는 것이 發芽가 잘되지 않는다.

江原道 등지의 民間에서 말하기를 當歸, 羌活 등의 종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파종하면 대개 發芽가 된다고도 하는데 이는 파종하여 얼어 터져야 發芽가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하여 얼어 터져야 發芽가 된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種子가